

울산시, 주력산업·신산업 연계 기술강소기업 유치 '박차'

협약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 양질 일자리·울산시민 최우선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 약속 연구개발에 최대 8000만원 지원

울산시는 지난 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술강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연계할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뉴라이즌, 디플라, 마커스, 아이엠디, SG산전, 엠디소프트, 엠유트론, 유메드, 은연테크, 카비랩, 케이엠오테크 등 올해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기업은 4차



울산시청.

/울산시

산업 혁명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한다. 또 직원 근로 환경 시설 개선 투자와 사업비 집행 시 울산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기업당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을 돕는다.

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서는 기술강

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기술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됐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술강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 유치 및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으로 기업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년간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창업 기업 특별 지원 보조금 및 R&D 자금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추진하는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4년간 울산으로 이전한 기술강소기업 41개사를 선정해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저탄소 녹색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남 완도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고금면 용초리와 약산면 구성리 2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가 되는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2028년까지 두 개 마을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41억 여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시상식

경북도는 지난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년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14번째를 맞는 제안제도 운영 평가는 제안제도 운영 실적, 특수시책 추진 실적, 자체 제안 공모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항목 서면 심사 및 대면 평가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시군을 선정 표창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8 곳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상주시·예천군, 우수상 구미시·의성군, 장려상 경산시, 영천시, 봉화군, 고령군이 수상했다.

/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영양군

집중호우기 대비 민관합동 대처

영양군은 여름철장마 등 집중호우기를 맞아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지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30일 마을 지리와 환경에 밝은 이장 115명, 자율방재단 146명, 의용소방대 57명, 자율방범대 54명, 공무원 195명을 포함한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및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6월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예측구역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문화관광공

보문관광단지 기념우표 나온다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는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념우표 발행 사업에 보문관광단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사의 이번 기념우표 사업 선정은 2025년 개장 50주년을 맞이하는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부각하고, 새로운 50년 관광 역사를 준비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반영하여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전남도, 무안~항저우 노선 취항 도모

김영록 지사, 中 저장성 방문 정기노선 안착 위한 지원 요청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논의



무안국제공항.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랜 우호관계인 중국 저장성(浙江省)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남권 관문 무안과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를 잇는 정기 노선 취항 협약을 맺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 전남도 관광설명회와 무안~항저우간 정기노선 취항,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중국호남항우회와 현지 거주 유학생 등 30여 명을 초청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이튿날엔 이례훈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

기노선 안착 등에 저장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무역·문화·관광과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저장성의 참여도 요청할 방침이다.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항공업계,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정기노선 협약은 인아아웃바운드 여행사인 에이앤티(A&T), 항공운항계약대행사인 노타에어서비스와 체결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원 기자 ysn6313@

부산시, 지난해 기준 환경산업조사 진행

오는 12월 조사결과 공표 예정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기준 부산환경산업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의 역점산업인 환경산업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 등을 파악해 환경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평가·분석, 국비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부산에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8000여개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업체명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수출액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4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미래 100년 좌표 제시할 '김해연구원' 출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5번째

인구 56만 김해시 미래 100년의 좌표를 제시할 김해연구원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5번째로 출범했다.

김해연구원은 지난 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홍태용 시장과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허남식 신라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경제산업연구부, 문화관광복지연구부, 도시교통환경연구부 등 3개 연구부에 18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경영지원실 등 1실 3부의 연구조직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분야별 시민 편익 제도 연구로 지속 가능한 김해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앞장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와 출자출연 기관 수탁 용역 수행 ▲낙동강협의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정책 연구 ▲신사업 기획 등을 맡는다. 또 급변하는 사회, 경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원이 첫 걸음을 뗐다"며 부울경 중추도시인 김해시 발전을 견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2027년까지 연 655억 지원

구미시가 차세대 주력 반도체산업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총 10개 대학(단독형 4, 동반 성장형 6)을 선정해 2027년까지 4년(2+2) 동안 연간 65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구미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공모유형 중 동반 성장형(비수도권 연합)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

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4년간 1500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 28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반도체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지정된 '경북·구미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구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우수인재를 적기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